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6.06

079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55 T 062.521.0025 F 528.0026



New DESIGN

광주 · 전남 · 전북 뉴스
 광주 전남 전북 회원작품소개

June



02 시론

"그린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를 디자인 한다.
 - 대한건축학회 광주 전남지회 김동선 회장

03 핫이슈

-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개최
- ② (사)광주전남연,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진행
- ③ 2016년 건축사지역시험 및 특별전형 공고
- ④ 본지 건축문화시공상 신문, 오는 7월부터 대대적 자연 변경

04 설계경기

원도군 '수영정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간접사업 설계공모 당선작&가작
 순천시 '농속 치유의 집'간접 건축설계공모 당선작&가작

06 기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머무는 곳 - 누정과 해설
 - 광주여자대학교 환경서비스학과 김혜영 교수

07 사람 & issue

광주건축사회 김동선 부회장 (주)원일 건축과의 만남

08 NEWS

시공에서 열이홉, 지방소멸과 전라도/서재형 자문위원
 2016 친환경 건축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대구 근대건축문화터어 진행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 건축관련 학과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진행
 광주건축사회, 5개구청 건축 관계부서의 합동 간담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송양식 건축사, 광주 게이트빌립협회장에 선출
 2016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북 진안군 관내 건축사 3명,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전북건축사회, 전북교육청 사설교과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 빙글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내서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
 전라북도건축사회 6월 건축사 실무교육(전문교육) 시행 안내

“그린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를 디자인 한다



김 흥 식 회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hsk@honam.ac.kr

“그린스마트 시티 조성과 관련 하여 우리회회를 비롯한 건축단체 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건축가협회에서도 개별 또는 단체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대한건축 학회 광주·전남지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2016 친환경건축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 및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의 후원으로 “그린스마트시태생국제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과 기술보급에 노력코자 한다.”

건축인들은 자기의 업무를 소리 없이 빼앗겨 왔다.

미래 도시·건축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지난 5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KRC 아트홀에서는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그린빌딩협회 주관, 전라남도 주최로 “2016 친환경 건축디자인국제심포지엄”이 “미래주거담론(Healthy, Smart, Zero EnergyHousing)”을 주제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각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미래건축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기초연설로 시작하여 “일본 친환경 주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및 “미국 그린 홈의 확산 추세와 웰빙 트렌드”, “모듈러 건축과 지속가능성”, “패시브 하우스의 적용사례와 제로에너지하우스 비전” 에너지 저장형 주거의 사례 및 비전”, “남도 전통 건축과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친환경건축 관련 트렌드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울러, 미래주거의 흐름을 읽고 우리 건축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특히, 미래 도시·건축의 트렌드는 “Healthy, Smart, Zero Energy 도시·건축의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그린스마트 시티의 개념 및 방향

“그린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도시기능을 친환경녹색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구축함으로써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및 환경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이며 “ICT 기술과 생태기술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능화된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거주자의 건강성이 고려된 Health & Well-being 분야가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린스마트 시티 조성에 중요 이슈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특별시는 그린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고, 강릉시는 국내 첫 한국형 녹색기후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금후, 이들 도시의 사례로부터 그린스마트 시티 정책의 방향성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면서 급격히 변모하고 있으나, “그린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오고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과 급변하는 스마트기술에 대응코자하는 다양한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대한 주장이 점차 힘을 실어가는 것을 보면 도시 역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당면과제

친환경 녹색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구축할 미래형 도시인 ‘그린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 우리 건축사 및 건축가들의 역할분담이 각자의 영역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음의 노력들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그린스마트 도시 및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관련 법·제도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건축사와 건축가들은 그린스마트 시티 및 건축에 대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외 구체적 실행을 위한 활용 기술을 충분히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이를 실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경제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내실적·친환경 성장 등을 바탕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시티 조성의 기본원칙에 대한 개념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 학회의 역할

그린스마트 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회회를 비롯한 건축단체 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도 개별 또는 단체가 함께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2016 친환경건축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 및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의 후원으로 “그린스마트 시티태생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과 기술보급에 노력코자 한다. 특히, 지자체의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및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와의 상호 협력도 필요하리라 여긴다.
그린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전남건축사회 및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 건축가회와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KRC 아트홀에서 개최된 ‘2016 친환경 건축디자인 국제심포지엄’

2016 MIDAS TECHNICAL CONCERT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새로운 CAD 환경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2016.05.10 - 06.21 11개 지역

AGENDA 01

Session 1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설계 환경을 바꾸다.
건축계획/구조계획 : 정보기반의 새로운 CAD 환경에서 펼쳐지는 디자인 혁신

Session 2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도면 작성을 바꾸다.
구조도면/건축도면 : 구조 디자인 솔루션과 정보 CAD가 만들어 내는 드로잉 혁신

Session 3 예비 고객을 위한 마이다스 디자인 솔루션, 나는 이렇게 활용한다. 마이다스 고객을 위한 midas information CAD 실무 활용 가이드

행사일정 - 지역 02

5 May	6 June
10일 원주 호텔인터불고 원주	1일 천안 세종웨딩홀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대전	2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19일 청주 리미다 플라자 청주호텔	8일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 수원
24일 일산 연봉호텔	14일 강북 그린드 엠버서더
26일 강남 서울리미다호텔	16일 광주 리미다플라자 광주호텔
	21일 전주 전주 로얄호텔

행사관련문의 - 신종환 031 789 4257

이달의 건축계 핫이슈!

오는 6월 23일 (목)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주관하는 '2016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이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공유도시, 공유건축과 주거문화'를 주제로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 김재철 단장과 지오시테(주) 류영국 대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를 좌장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구지훈 교수와 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문정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염대봉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유창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건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순회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호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동남권, 제주권, 수도권 등 총 4회 가량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포럼 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할 예정임에 따라 광주, 전남, 전북지역 건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16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6.6.23.(목) 14:00~17:00/5.18기념문화센터(대동홀)
- 주최/주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광주광역시
- 참석 대상 : 250여명(국간위, 대학교수, 건축사, 공무원, 대학생 등)
- 진행 계획

시 간	부티	까지	주요내용	비고
14:00	14: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	14:10	개회사	제재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14:10	14:18	환영사	문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14:18	14:25	축 사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주제 발표 및 토론) 공유도시, 공유건축과 주거문화				
14:25	14:50	주제발표1	김재철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	
14:50	15:10	주제발표2	류영국 지오시테(주) 대표	
15:10	15:30	주제발표3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5:30	16:20	전문가 토론	유우상(좌장), 국간위 위원 등 8명	
16:20	17:0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안양권역 답사에 100여명 참가 신청, 오는 6월 25일 오전 7시 광주역에서 출발

(사)광주재단언,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진행



(사)광주재단연합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광주도시재생 발전 방향과 광주도시재생의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6년 상반기 광주도시재생투어를 마련했다. 이번 투어는 경기도 안양권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안양예술공원'과 공장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김중업 박물관', 폐광채소 프로젝트 '광명동굴'을 답사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참가자를 모집했고,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100여명의 일반시민들과 학생들, 건축사, 교수들이 신청하며 많은 관심이 몰렸다. 오는 6월 25일 토요일 오전 7시 광주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답사단에 대한 문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714-2565)으로 하면 된다.

오는 9월 3일 시행, 원서접수 7월 6일부터 13일까지..

2016년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 공고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와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은 오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오는 9월 3일에 시행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8월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합격예정자는 오는 10월 28일 발표한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 건축설계2이며, 실제 실기시험이다.

한편 지난해 시험에서는 총 5,164명이 응시한 가운데 17.5%인 904명이 합격하여 역대 최고 합격률을 보였고, 합격자 중 최연소자는 만27세, 최고령자는 만60세로 평균연령은 만38세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이 71.5%이고 여성이 28.5%, 학력은 대학교 이상 학력이 전체의 7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지 사설 게재와 지역별 정보제공 및 지역 회원작품 게재를 위한 지면 개설 등...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오는 7월호부터 대대적 지면 변경



지난 4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2016년도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전남·전북 발행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본지 전임 편집인인 일부 편집위원의 임기가 지난 4월 10일 만료되어 신임 편집인인 편집위원의 취임으로 새로운 편집방향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지난 2016년 5월 78호 3면 참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자(80호)부터 본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 사설 게재와 지역성 강화 및 소속 건축사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광주, 전남, 전북 지역별 지면 개설 등 전체 지면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행 시·도건축사회에서는 표지 사설 게재에 따른 외부 논설위원(건축 관계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각 2인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지면 개설에 따른 회원작품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 지역별 지면 개설에 따른 회원작품 게재 공고
- ▶ 제출대상 :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회원 누구나 가능
- ▶ 제출작품 : 계획안, 현상설계 제출작품, 준공작품, 제한 없음
- ▶ 제출기간 : 무기한 제출
- ▶ 제출방법 : 작품 파일 JPG 또는 PDF파일과 개요 및 작품 설명 부분 한글 파일 등
 - ※ 대표 조감도는 필수
 - ※ 데이터 웹하드에 게재(아이디 : gjkira, 비밀번호 : 0025)
 - 또는 이메일(gjkira@empal.com)로 제출
 - ※ 문의 : 건축문화사랑 신문 고객센터/TEL.062-521-0026

본지 정명환 편집인은 "오는 7월 10일자 지면 변경을 통해 우리 지역 회원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월간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독자들과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말했다.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원도군은 사면이 바다로 형성된 도서해양지역 특성상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해상 안전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수영교육을 통한 해상안전사고예방과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수영장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다.

발주처 : 전라남도 원도군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당선작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기준 건축사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 이주경 건축사
 우수작 : 배두 건축사사무소 - 강연성, 박규상 건축사(자료 미제출)
 가 격 :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정국주, 정현아 건축사, 최재영

대지위치 : 전라남도 원도군 완도를 중앙길 43(부지내)
 대지면적 : 3,600㎡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도로현황 : 남서측 20m도로, 북서측 8m 도로
 연 면 적 : 2,681.40㎡

용적을 상정용 연면적 : 1,315.99㎡
 건축면적 : 1,623.69㎡
 건 폐 율 : 45.10% (법적 : 60%이하)
 용 적 율 : 36.55% (법적 : 250%이하)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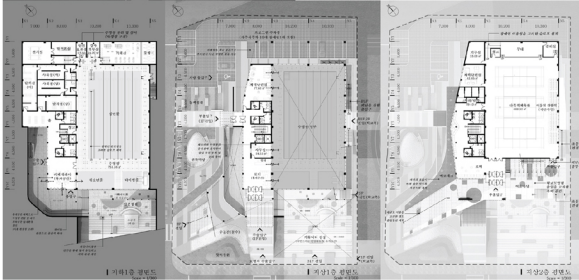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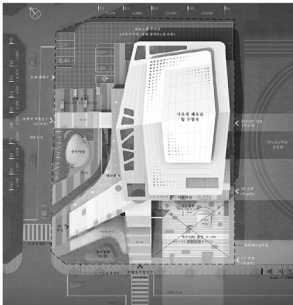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 15.6m
 외부마감 : 옥재타일,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복합판넬, 석재 등
 주 차 : 19대 (장애안1대, 일반 18대)

당선작

김기준 건축사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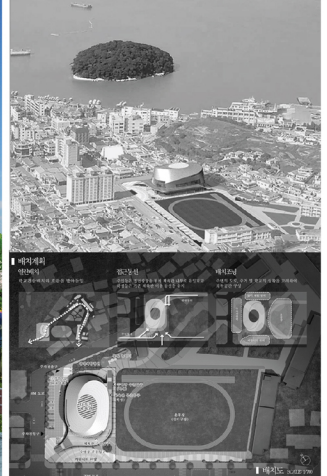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대지는 밀집된 주거지역 중의 눈에 띄는 열린 공간이다.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체육시설의 중심이 되며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원도의 빛과 자연, 바람의 물결을 반영한 형태의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에 본다.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이아 말로 강사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대응하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이 될 것이다."



대지위치 : 전라남도 원도군 완도를 중앙길 43(부지내)
 대지면적 : 3,600㎡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도로현황 : 남서측 20m도로, 북서측 8m 도로
 연 면 적 : 2,792.57㎡
 건축면적 : 1,632.46㎡
 건 폐 율 : 45.35% (법적 : 60%이하)
 용 적 율 : 67.45% (법적 : 250%이하)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 21m
 외부마감 : 스테인레스복합판넬, 로이복층유리
 주 차 : 18대 (장애안1대포함)

가 작

정국주, 정현아 건축사
 최재영 건축사(프랑스)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숲속 치유의 집 건립 건축설계 공모

생태 숲을 활용하여 자연치유와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는 친환경 휴양치유시설로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 숙소동과 국민여가캠핑장과의 조화 및 지형과 연계성이 충분히 반영된 복합 기능을 가진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심사 위 원: 정금호, 이동희, 정광용, 탁기봉, 조준익

발주처: 전라남도 순천시 설계공모방식: 제안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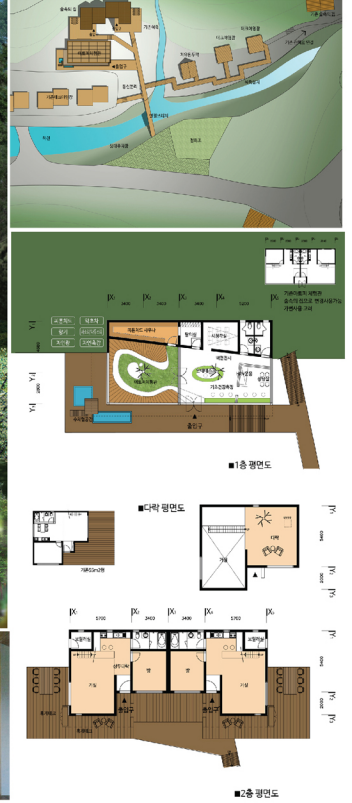
대지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160
대지면적 : 90,000㎡
구 조 : 지상 2층
주 조 : 활근콘크리트조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기온 회사와 건축사 우수작: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류연창 건축사 (자료 미제출)
가 작: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박병열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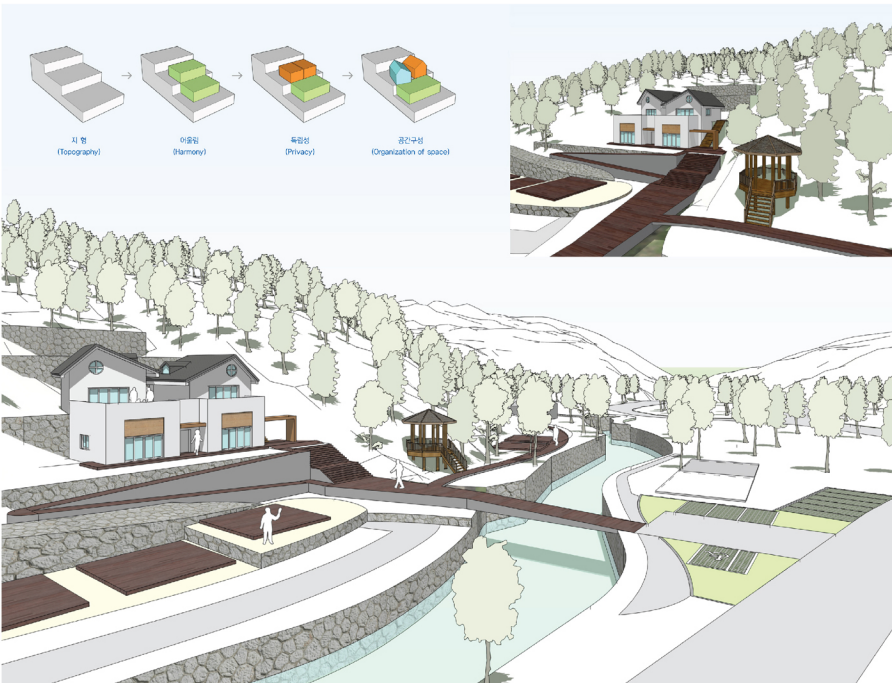
당선작

최시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기온



가 작

박병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이 머무는 곳 - 누정과 해설



김혜영 교수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항공관광개발학과
tourism0309@daum.net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시작오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2016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을 요청받아 교육을 시작하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26명의 교육생! 30대에서 70대까지 광주광역시의 관광을 알리겠다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해설사가 되기 위해 100시간의 교육시간을 열정적으로 채워가고 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는 교육은 처음 받아보았는데 어떤 교육생의 말에 조금은 미안함이 느껴졌다.

문화관광해설사란 "방문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관광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여행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며, (친밀한 교류) 기회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와 관광객을 연결하는 (매개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만물박사, 안내인, 지식인 등의 다양한 별칭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만큼 광주지역의 많은 분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 생태,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관광지해설에 있어서 건축물과 역사를 함께 설명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 교육생들과 함께 누정과 더불어 고건축이 있는 곳을 답사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 다녀온 광주호수생태원은 환벽당, 식영정 등과 연계된 해설이 이루어져서, 광주전남의 역사문화를 해설하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머무는 곳 누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누정(樓亭)에 대해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줄인 말로 자연과 인간을 서로 이어 주는 매개체적인 건물양식이다. 우리 건축에서는 고유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 맨 끝의 접미사인 전(殿), 당(堂), 실(室), 각(閣), 현(軒), 누(樓), 정(亭) 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 누(樓)는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벽이나 문을 두지 않은 다락식의 건물양식으로 주로 관청이나 지체높은 대관들이 세웠으며, 정(亭)은 누(樓)와 같은 형식을 갖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주로 양반이나 사대부층에서 건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누정(樓亭)은 사람의 눈높이보다 높게 자리하고 있고, 사방이 바라볼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살림살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엌이 없다는 점은 생활공간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가는 특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누정(樓亭)을 자연체로 보면서 하나의 정원으로 인식하였다. 정에서 단순한 건물양식을 넘어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누정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내에서 학문과 예술을 논한 장소였다는 점은 누정이야말로 인간생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누정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신라 소지왕(488년) 때에 천천정(天泉亭)으로 행차했다는 기록이 가장 앞선다. 이 때의 누정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행차(行次)'에서 일반적인 생활공간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경상도 1,295곳, 전라도 1,070곳, 충청도 219곳, 강원도 174곳, 제주 6곳으로 조사하여 이중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누정건립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의 누정

경상도의 누정은 서원과 관아에 딸린 건물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비해 전라도의 누정은 대부분 독립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풍부한 물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1985년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라도 지역의 현존하는 누정이 약 450여 곳, 기록에만 전하는 누정이 약 70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 또한 30여 년 전의 조사여서 현재와는 다소 변동이 생겨 추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누정에는 현판(懸板)과 시판(詩板) 그리고 주련(柱聯) 등 다양한 목판기록물이 존재한다. 누정 한 곳당 평균 10점으로 환산한다면 목판기록물만해도 약 4,500여 점에 이를 정도이며, 이는 누정건축이 문화콘텐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전라도 누정의 특징은 앞서 말한 대로 풍부한 물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누정은 주거공간 안에서 세울 수 있지만, 호남의 경우는 생활공간에서 조금 떨어져서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세웠다는 점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전라도 누정은 건물의 주인이 있음에도 주인행세를 하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며, 이 때문에 다양한 인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예로 전남 담양의 명양정(明陽亭)이 있다. 명양정은 16세기 때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 송순(宋純, 1493-1582)이 세웠다. 누정 이름은 '맹자(孟子)'에서 군자가 가진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두번째인 '우려러보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仰不愧於天, 俯不慚於人)'에서 따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倪'를 구부리다의 뜻을 지닌 '부'로 일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관습적으로 명양정이라고 부른다. 명양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1654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1989년에 보수하여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누정이다.

현재 명양정에 걸려 있는 현판은 송순과 같은 시대 인물인 청송(淸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이 썼다고 기록에 전하나 명양정이 임진왜란 때 타버렸다고 했으니 지금 남아 있는 현판의 글씨가 성수침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건축형태로는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우진각 기와지붕을 하고 있으며, 사방에 누마루를 두르고 가운데 방을 얹고 있다. 전라도의 진산(鎭山) 무등산(無等山)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은 곳에 움푹 튀어오른 제월봉(濟月峰)에 자리잡고 있어 사방 스리 이상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졌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명양정 사방 일대의 풍광을 30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노래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임억령(林億齡, 1496-1568), 박순(朴淳, 1523-1589) 등의 <명양정삼십경>이라는 연작시(連作題詠詩)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정조(正祖) 22년(1788)에 <하어명양정(荷輿明陽亭)>이라 내린 응제시(應製詩), 송순 자신이 쓴 원운시 3수와 그 원운을 소재양이 차운한 시, 1737년 담양현감 조세관(趙世觀)이 자신의 선조와 송순의 인연을 노래한 시 등 동악 이안눌(東嶽 李安訥), 퇴계 이항(退溪 李滉) 등 당대의 명사들이 쓴 작품 등 모두 13점의 현판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명양정은 그저 쉬었다 가는 공간이 아닌 당대의 명사들이 사교를 통해 학문과 예술을 나누는 살롱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절주절 형식에 상관없이 누군에게 누정에 엮인 이야기를 하듯이 광주전남의 누정에 대해 이야기를 적어보았다. 건축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한 어느 작가의 말이 떠오른다.

“협회 발전을 위해 선후배 건축사 서로가 이해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단합하길 바라며...” 광주건축사회 김동선 부회장과와의 만남

광주의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김동선 건축사(이하 김 건축사)는 젊은시절 1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30여년 가까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봉사정신으로 광주건축사회 이사과 감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조직운영의 전문가로서도 잘 알려진 김 건축사는 더욱이 올해 3월말 개최된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추대됨에 따라 앞으로의 단체 발전을 위한 노련한 활동이 기대되기도 하는데... 다음은 지난 6월 2일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김 건축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 3월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셨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이사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간에 상생협력과 단합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임기동안 상호 소통의 마음으로 모든 회원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축사로서 겪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릴적 동네 어른들께서 저에게 너는 손재주가 넘더라리라는 말씀을 자주하셨는데 무엇이든 만든다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던 것이 동기가 되어 제 스스로 이공계대학 건축학과를 선택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군 입대, 전역과 동시에 건축사의 꿈을 가지고 은사님인 김덕수 건축사님이 경영한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였으나 한 달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의 꿈을 접고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 중 건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고 1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989년 동선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설계 디자인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학문을 야간에 보충하여 학업을 조금 더 계속하게 되었고, 그 동안 크고 작은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에 매료되어 건축설계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20년 넘게 다수가 가하는 아파트 건축을 주로 디자인하였으며, 그 좁은 공간들 속에 조금이나마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가 디자인하고 고민하면서 현재까지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은 그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여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물을 포장하여도 사람들이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실패한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고 인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디자인의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활동을 하시면서 자랑스러운 때와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면

우리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설립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연금회원의 자녀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적게나마 장학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때는 최근에 있었던 회원이 회원회를 고발하는 불미스런 행위로 인하여 전체 회원 상호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협력이 잘되지 않는다는 외부의 따기운 시선과 물음에 같은 건축사회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

국내외로 두 가정을 꿈 수 있는데 먼저 국외 인물로는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Antoni Gaudi, 1852-1926)입니다. 가우디는 현대건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축가로 나무가 서있는 것 같은 평행구조를 설계하였고, 형식과 격식을 깨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건물을 만들어 냈으며, 가우디의 건축물은 벽이나 천정에 우아하면서도 특이한 곡선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자연의 이미지를 살린 작품들은 형태, 질감, 다색 장식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이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표현 구성하는데 있다는 점이 뛰어나다 할 것이며, 특히 그의 좌우명인 ‘페스티나 렌데(festina lente)’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실천한 건축가로서 실제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천천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기에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등 7개나 되는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그의 말대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100년이 지난 현재도 건축 중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좌우명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계교 교훈을 준 위대한 건축가이자 한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국내 인물로는 故 김중업 선생을 존경하는데 특히 그의 건축은 한국 전통 건축을 재해석하여 작품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존경을 표합니다.

건축사가 추구해야 하는 길에 대해... 건축인이 건축의 길을 가야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특히 건축사는 자신의 지식과 디자인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규범과 인간관계, 복잡 다양한 생각과 논리 등을 총 망라하여 디자인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신을 믿고 찾는 의뢰인에게 건축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하고, 설계디자인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건축가 및 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상대와 힘겨움을 하는 현실에서 엄청난 고뇌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축인의 애로점을 우리 사회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이라도 건축사를 인정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는 소박한 마음입니다.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국제로타리인으로서 국제로타리3770지구 용봉로타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로타리인들의 봉사의 기본 이념인 초아의 봉사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후배 건축사님 사랑합니다. 선배건축사님은 후배님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후배님들은 선배님들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후배건축사가 되어 서로가 이해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단합하여 광주건축사회가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부회장으로서 우리 광주건축사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건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 믿는 저는 이 행복건축의 그릇에 맑은 공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연 속에 나만의 꿈과 행복을 담은 작은 건축을 꿈꿔봅니다.

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jkja@empas.com



광주 /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김 동 선 건축사



지난 3월 광주건축사회 부회장으로 추대된 후 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래 우측 1번째 김동선 건축사)

< 김동선 건축사 작품 >



장흥 리버하임주상복합



AU 컨벤션호텔(라페스타)



남평지구 영산아파트



여수 문수동 피도오레 아파트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지난 5월 20일 (금)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KRC아트홀에서 진행

2016 친환경 건축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재)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주최하고,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 친환경 국제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5월 20일 (금)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KRC 아트홀에서 진행된 행사는 '미래 주거담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김흥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래는 친환경 건축 등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될 것임을 강조' 하였고 이어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김희재 회장의 개회사 및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도 있었다.

'1부 기초발표는 '친환경 건축과 미래 담론'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승복 교수와 일본 교토대학교 호코이 슈이치 교수, 미국 이노베티브 디자인 고배원 대표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2부에는 '진화하는 친환경주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함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한승훈 교수, 동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석봉 교수,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김요근 이사 등이 초청패널로 출연했다.

영어와 일본어로 통역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국내외로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격을 한층 높이는 행사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제공

지난 5월 18일 학생 및 교수 80여명, 근대건축을 투어 등 산업 시찰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대구 근대건축문화투어 진행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학과장 김중원 교수) 학생 및 교수 80여명은 지난 5월 18일 대구지역 및 인근의 근대건축물을 투어하는 산업시찰을 다녀왔다. 우리 광주지역의 양림동 근저 근대건축물과의 비교 및 문화탐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산업시찰은 근대건축물을 더욱 잘 이해하고, 영호남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김광석 거리, 골목길투어, 마로코반시시 등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제공

시상식 7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 전시는 5일간 진행

제2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오는 6월 18일 작품접수 마감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가 공동주관하는 제 2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의 출품작품을 오는 6월 18일 접수마감 할 예정이다.

응모부문은 한국화 · 서양화(수채화 포함) · 판화 · 조각 · 공예 · 서예 · 건축 · 미디어 · 문인화 · 디자인 등 10개 부문이다.

시상부문은 부문별로 대상에게 각각 광주광역시장상과 상금 500만원이, 부문별 최우수상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시상된다. 작품 수준에 따라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면 누구나 1인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출품료는 1점당 50,000원이고 동일부문 2점 출품자는 80,000원이다. 특별히 건축은 3인 이내로 디자인은 2인 이내로 공동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와 심사는 각 분야별로 다르며 시상식은 7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입상작 전시기간 및 장소는 시일로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062-222-8053)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010-3638-9838)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에서 _ 열여덟

지방소멸과 전라도

최근에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과소화 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 1333호(2016.5.9)에 게재된 '당신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30~40년 후에 인구가 소멸할 위험에 처한 기초단체(시·군·구)가 80곳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은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쓰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의 분석 방식을 차용해 전국 252개 시·군·구의 인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마쓰다는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입 여성 인구가 주목했으며,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이 적은 지역일수록 정거적으로 인구가 소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위와 같은 예측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고흥군과 경북 군위군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라도는 광주광역시, 광안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무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기후와 지형의 영향으로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진 농도(農道) 전라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긴 것이다.

사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과소화 마을이 출현하고, 결국 머지않아서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예측결과를 접하고 보니 당황스러웠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뭔가? 기사에서는 여성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건축전문가의 역할은 뭔가? 여성친화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농어촌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러 해 동안 농어촌 활성화에 참여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점이다. 도시에 비해 일감의 양이나 질도 떨어지고 돈벌이도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농어촌을 외면해버리는 건축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더러는 농어촌의 건축문화를 도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았다. 아쉽게도 농도인 전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도 있다. 현장을 오가며 농촌건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젊은 학자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드물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촌 특유의 건축문화 정립이다. 즉, 농촌의 정체성과 환경의 보전 및 양호한 정주환경의 조성이 모든 대비책의 바탕이 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얘기다. 농도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건축전문가들이 더욱 분발하여 고향을 지키고 더 나아가 농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이유다.

(자유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광고: 200,000원
- 구독료: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신협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지난 6월 3일 광주건축사회 사회의실에서... 아카데미 및 취업지원 등 설명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 건축관련 학과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진행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6월 3일 광주건축사회 사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건축관련 학과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김동선 부회장, 정정수 교육정보위원장과 광주지역 대학교 건축관련 학과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등 10여명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비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설계실무아카데미' 및 '정부취업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방향의 설명을 위해 마련됐는데, 특히 '건축설계실무아카데미'는 광주·전남권 소재 대학 건축전공 졸업자들에게 건축사사무소 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우수 교육생에게 취업을 추천하여 청년실업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동시에 광주·전남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에 필요한 설계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학교 대표들은 운영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했고, 광주건축사회는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수정해 2017년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정명철 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실질적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우리 건축 전공 후배들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하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 전북 부안에서 진행... 건축행정에 대한 소통의 자리

광주건축사회, 5개구청 건축 관계부서와 합동 간담회 개최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6월 21일과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임원 및 각 구협의회장, 시·구 건축위원회 활동 건축사들과의 소통·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 관계 프로그램으로 건축행정에 관한 상호이해와 건설화를 위해 광주지역 5개 구청 건축과장, 계장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갖고 건축사들과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명철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 사회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도부 회의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함께 진행될 각 구 건축과장, 계장들과의 간담회는 우리 회원들의 건축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정명철 광주건축회장 참석

광주 건공회(건축직 공무원단체), 2016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개최



광주지역 건축직 공무원단체인 광주 건공회(회장 윤정권, 광주시 건축주택과장)가 지난 5월 28일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2016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정권 건공회장을 비롯한 시산하 건축직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건축사회에서도 정명철 회장 등 일부 임원이 참석했다.

정명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건축직 공무원들과 건축사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 광주건축사회에서 개최하여 더욱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며 "건공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6대 신임 이사장으로 3년간 임기 수행, 3無 3新 리더십 정책 언급

광주 도시재생국 안용훈 국장, 광주환경공단은 신임 이사장에



지난 6월 초,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안용훈 국장이 광주환경공단 제6대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돼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안용훈 신임 이사장은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을 거쳐 도시재생국장을 역임하며 도시건축의 전문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신임 안용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이번바

'3無 3新' 리더십 정책을 언급하며 방만경영근절, 예산낭비 차단, 부패비리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핵심역량 일신, 상생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안용훈 이사장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깨끗한 최상의 생태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의 믿음 안에서 되살아나는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축사로서는 처음, 게이트볼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광주건축사회 송양식 건축사, 광주 게이트볼협회장에 선출



광주건축사회 송양식 건축사(한미 건축사사무소)가 광주지역 건축사로서는 최초로 광주 게이트볼 협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6월 경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됨에 따라 광주지역 게이트볼협회도 통합되어 새로운 광주게이트볼협회가 창립되었고 그 창립 회장으로 송양식 건축사가 선출된 것이다.

"건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히고 동시에 "게이트볼은 3세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비용도 크게 소용되지 않고 건강을 다질 수 있어, 우리 건축사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양식 건축사는 지난해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추대하는 '2015년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 지역 건축인들의 대변배이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발한 업무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수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는 6월 말 경 진행, 회원사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개설

광주건축사회, 2016년 상반기 BIM 실무교육 개최 예정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회원사의 업무능률 향상과 건축설계 프로그램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BIM 실무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말경 광주역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6월 10일까지 공고를 통해 소속 건축사 및 사무소 직원 25인을 선착순으로 하여 모집했으며, BIM 이해와 REVIT 모델링, REVIT DATA 활용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건축사회는 작년 11월에도 회원사들의 업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1달 과정의 'BIM 실무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규모가 2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생급수 난방배관에 KS규격(16mm) 제품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청, 광주건축사회에 건축물 설계·시공 시 협조 공문보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지난 5월 중순 경 광주건축사회에 공문을 통해 관내 건축물 설계 시공시 다음과 같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조요청의 주요내용은 위생급수 난방배관(PB배관)에 KS규격(16mm)이 아닌 비KS 규격(15.8mm) 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관경차이로 인한 틀로 누수 등이 발생됨에 따라 배관제품에 KS규격(16mm) 제품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광주건축사회에는 전체회원 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해당 사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24일 빛고을고객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활동가 46명 배출

광주도시공사, 제2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가져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지난 5월 24일 빛고을고객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제2기 도시재생대학은 공무원, 건축사, 교수, 공인중개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2달간 운영됐으며 도시재생 활동가 46명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2기 재생대학에서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 이민석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 등 광주, 전남권 교수들이 열의를 가지고 현장조사와 실습과정을 지도하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이 각 분임조별로 '송정동에서 먹고 놀다 자고 가자!', '양동 통솔미를 삼킨다는 마을만들기', '산수·계림동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임동 도시재생 계획', '대인시장 옆 숙박촌 한옥거리 조성계획' 등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도시재생 방안은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0월에 제3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지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도시공사 재생사업팀(062-600-6858) 또는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mccurbanegen), 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 보다더 큰 믿음과 혜택을 드립니다. ■

신협 VS 은행 비교 분석

구분	신협	은행
비과세 혜택	1인당 예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부과
이익금 분배	조합원에게 전부 환원(비영리조직)	주주에게 배분(영리조직)

※ 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예적금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실속있는 비과세 예금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서비스 ■ 빠르고 편리한 전자기금융서비스 ■ 조합원을 위한 맞춤대출

지난 5월 2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건축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와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5월 2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라북도내 건축인(건축직 공무원 및 건축사)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16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라북도·시군 팀 189명, 전주시·완주군 팀 95명, 전라북도경찰청 102명, 전라북도건축사회 216명, 가족 100여명 등 총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줄다리기, 400m 계주, 레크리에이션 경기 등으로 진행됐으며 건축인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 및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에 대한 전북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인들 상호간 교류의 장을 통하여 건축발전은 물론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터전을 넓혀가는 데 주춧돌이 되어 줄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내 건축인(건축직공무원 및 건축사)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장학재단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 전달

전북 진안군 관내 건축사 3명,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지난 6월 3일 전라북도 진안군 관내 건축사 3명은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날 장학금을 전달한 건축사는 명인 건축사사무소 배종철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정성민 건축사, 아진 건축사사무소 김중원 건축사이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좋은 곳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이항로 이사장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건축사님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9일 회관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

전북건축사회, 전북교육청 시설과와 간담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6월 9일 회관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병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교육청 시설과 구원중 과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청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했는데, 건축사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회원들에게 취합된 의견을 전달했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전병갑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후 "건축행정 업무에 대해 양 기관간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어 만족스러운 지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건축·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전북 군산시, 건축·도시업무 최우수기관상 수상



전라북도 군산시 주택행정과 이광태 과장이 대통령수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2일과 3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2016년 건축·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 군산시 사례 발표자로 참석,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건축·도시정책의 아이디어 공유와 통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대표로 나선 이광태 과장은 '건축규제완화 적용으로 전국최초 부유식 건축물의 허가기준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부유식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산시가 건축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제정 고시했다.

전국 지자체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대표로 나선 이광태 과장은 '건축규제완화 적용으로 전국최초 부유식 건축물의 허가기준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부유식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산시가 건축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제정 고시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을 하반기 광주전역에 지정 계획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과 동·식물의 위해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했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에 용도지역 등을 고려, 제1층부터 4층까지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명기구가 적용대상이다.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기존 설치조명은 유예기간 5년 동안에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신규 설치조명은 바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형에 따라 최저 1백원 이하와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79281을 참고하기 바란다.

당선작 인도팀 '숨겨진 회랑', 상급 미화 6만달러 및 설계권 부여

전남 순천시, '순천부유성 관광자원화' 국제아이디어 설계 경기 당선작 발표



전라남도 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부유성 관광자원화'의 국제아이디어 설계 경기 당선작을 지난 6월 7일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에는 해외 185팀, 국내 118팀 등 총 42개국 303개 팀이 참여해 외국인 참가율이 61%를 넘어 국외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김준성, 유엘브라인 등 UIA에서 추천한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6월 3일부터 사흘간 엄정한 심사를 펼쳤다.

그 결과 1등 1팀, 2등 1팀, 3등 3팀 등 5개의 당선작과 가작 8팀을 선정했다. 1등에는 인도 studio MADE의 'The Hidden Cloister', 2등 프랑스 reset-studio, 의 'Between the Yeonja-ru Roofs', 3등에는 미국 DOUBLELOADED의 'Culture Terminal', 한국이소우건축사무소의 'Urban Threshold', 우루과이 ZZZ,의 'suncheon art platform' 이 각각 선정됐다.

1등에 당선된 인도 MADE팀에게는 상급으로 미화 6만달러와 실시설계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2등에게는 미화 4만달러가, 3등 3팀에게는 미화 1만달러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당선작 포함한 우수작품 100여점을 문화건강센터에 전시하고 당선작 시상 및 작품설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모대상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기반시설 등 공공건축 사업...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의 공로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수준이 국가의 건축·도시문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수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발주자의 혁신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시행하였다.

공모대상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기반시설 등 공공건축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가 모두 응모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한 최대 5개 기관(부서)까지 공동 응모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자메일·공문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7~8월 중)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3점) 및 우수상(건축도시 공간연구소장상, 5점 내외)이 수여되며, 수상기관이 향후 국토환경디자인사업업 등도 시가산점이 부여된다.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6월 건축사 실무교육(전문교육) 시행 안내

가. 교육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나. 교육 장소 : 전주 바울교회 바울센터
다. 교육 과목

교육구분	과 목(모집인원)	시간일정	강사
전문교육	건축공사 감리실무 I (120명)	10:00~12:00 (2시간)	조 병 섭 -엘도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문교육	건축공사 감리실무 II (120명)	13:30~15:30 (2시간)	
전문교육	건축법 이해 (120명)	16:00~18:00 (2시간)	윤 혁 경 -에이앤유 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회 관련 6월·7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김인호 건축사 / 지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봉선2로 25 (봉선동, 귀은빌딩), 3층
- *전입**
 - 장경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양SPACE
 - 광주 서구 삼호원로 24번길 (지자동)
 - 오금열 건축사/(주)다이지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 김홍일 건축사/(주)다이지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 *변경(소재지)**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광주 서구 광곡로 61, 2층, 9층(금호동)
 - 심모기 건축사 / (주)한진종합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삼일로 14번길 13-12, 1층(쌍촌동)
- *변경(상호, 소재지)**
 - 배석순 건축사 /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광동4길 109 5층
 - (회정 4동, 사일주유소)
 - 정인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휘건이앤지(주)
 - 광주 북구 서하로 125, 2층(매곡동, 태원빌딩)
 - 박상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공합 건축
 - 광주 서구 화정로 293, 4층(농성동)
 - 정일중 건축사 / 다에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내방로 329, 2층(화정동)
- *결혼**
 - 이남근 건축사 / 우인 건축사사무소
 - 본인결혼 - 05월 21일 (토)
- *부고**
 - 양동협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05월 15일 (일)
 - 장동현 건축사 / 동진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06월 05일 (일)

□ 광주·전남·전북·6·7월 지역축제 안내

- ▶ 06, 17 (금) ~ 06, 19 (일) 고창 북촌자와 수박축제 2016 - 전북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일원
- ▶ 06, 17 (금) ~ 06, 19 (일) 비전마을 곡작 거리축제 2016 - 전북 남원시 송촌읍 생가 일대
- ▶ 04, 20 (수) ~ 06, 25 (토) 광주 호남예술제 2016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일원
- ▶ 07, 14 (목) ~ 07, 19 (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2016 -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 ▶ 07, 23 (토) 광주물총축제 2016 - 광주 동구 금남로 차없는거리 일원
- ▶ 07, 29 (금) ~ 08, 02 (화) 고흥우주항공축제 2016 - 전남 고흥군 니루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
- ▶ 07, 29 (금) ~ 08, 04 (목) 정남진정충물총축제 2016 - 정남진정충물총축제 2016

법 / 령 / 정 / 보

□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0)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카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성 기준이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준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는 20년 내 지진 발생기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우구조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하여 취약부분을 해소하였으며,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를 기준으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하였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제곱미터 (㎡)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막과 케이브,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건축주요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과 케이브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위치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성능설계법도 구조기준에 새로이 마련되어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 수중 이성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구조 기준에 있어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후 신축방식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안 별표 2제5호)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동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던,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주거 기준에 있어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초: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준 운영지침 시달

'건축구조기준' 부칙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시행이후 법제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허가 허가 등을 신청)과 한한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등을 신청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구조설계가 상당히 진행되어 허가신청이 일박한 가운데 새로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사례 등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31일까지 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9호, 2015.10.30)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국 내용 및 공문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7946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영철, 박용욱, 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경수, 이성범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갑진, 국철선, 김남중, 윤문근
초대편집인 박용욱
편집인 정영환
부편집인 김동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환
전담가사 박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철, 박신남, 김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연, 이홍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1044
발간 2010-01-25
등록일자 2010-01-25
편집장 (주)다이지인포우 T.062)385-9395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오는 7월 10일자 (80호)부터 새로운 지면으로 독자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원 전면광고: 1,0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후원 및 전면광고: 700,000원	• 후원료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 하단1/2광고: 350,000원	

건축문화 **사랑** 신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공제조합	1,000,000원
광주건축사회 실무교육	1,000,000원
(주)원진이앤씨	350,000원
(주)미디어스아이티	3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건/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시평/논문/건축기술/독자만담/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취미 취동, 교수신문, 인사 이통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매달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kira@empal.com

1. 건축작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정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책 소개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 오주협 지음 출판사 랜덤하우스중앙/2004년



오즘 100세 시대의 열풍에 물들어 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어른들이 자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어른들의 미래보다 그 어른들을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인생이 더 담담해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삶과 배려와 이해가 넘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밝고 명랑하게 자라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이라는 도서를 소개해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의 글처럼 초보아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네 아빠들은 ‘아빠’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워하기 보다는 가족 모두의 삶을 홀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권위의 상징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 보입니다. 이 책 속에는 초보 아빠 때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아빠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공감하며 건강한 자녀를 통해 행복한 아빠가 되어가는 시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삶보다는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며, 순수했던 ‘아빠’때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제 시작하는 ‘아빠’들에게 ‘화팅’을 외쳐봅니다.

한편의 시



뒷모습

아름고 나만 후회하는것같은 엄마로 가슴 조이지 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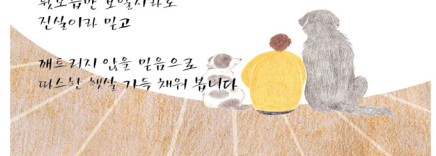
괜한 용감으로 가슴겨까지 마고

보여주고 싶어질지 있는데 눈이 후회까지 마고

뒷모습만 보았지라도 진실이라 마고

깨뜨리지 않을 믿음으로 너의 사랑 가슴 채워 볼테라

태할설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세상사는 느낌



“오늘 어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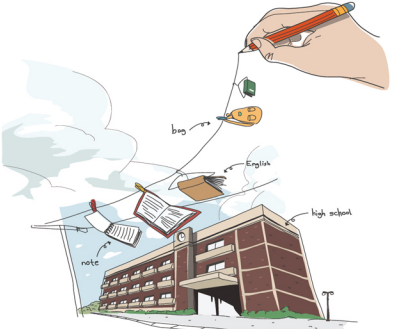
오교주 기간제교사 전북 전주시

저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국어과 기제교 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신문” 편집위원의 원고 청탁을 받고, 한참을 고민하다 역시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학생이야기라고 생각되어 그 이야기를 풀어 놓을까 합니다.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잦은 기출과 절도로 문제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학교로 잡아다 놓고 혼쭐을 내주려 하는데, 너무 당당한 학생의 표정에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험미약은 30살의 젊은 남학생이 어찌 선도해야할지 감도 오지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다면 늘 해오던대로 다그치고, 타이르고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는 뻔한 한마디만 남겨놓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건축사님과과의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왜 그랬대?” 라고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속으로 “이차” 싶었습니다. 나무랄 생각만 했지, 다른 이야기를 물어볼 생각이 못한 제가 민망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유를 물어봐왔습니다. 마음먹고, 학교에 출근하였습다. 하지만 공요롭게도 그 학생은 또 그 날 기출을 간행하였습다. 기출 3일째 되던날에 휴대폰 추척 끝에 경기도에서 그 학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밥은?” 우습게도, 경기도에서 만난 학생에게 단전 첫 질문입니다. 실은 또 답답한 마음에 공원둔지에서 벤치에 같이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너 편할 때 와라”라는 말을 남겨냈습다. 돌아서서 가는 제 뒤통수에 그 학생은 “배고피오 선생님” 이라더더라고요. 김자탕을 돌아서 먹으면서 제가 운을 떼기를 “김자탕, 삼겹살, 회를 먹을 때 소주를 먹지 않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 잘 알지만, 소주 한 병을 시켜다, 그 학생 한 잔 채워주고, 전 말없이 계속 소주잔을 비웠습다. “선생님, 저 안 혼내세요?” “물로? 기출로? 그럴 수도 있지.” 그제서야, 그 녀석이 계속된 말없는 분위기가 머쓱했는지 이것저것 묻에 힌뵘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사용한 말은, “그랬구나” 뿐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다. 기출한 학생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럴수도 있었구나하고 동조의 마음마저도 일었습니다. 내려오던 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왜 들어주지 못했던걸까, 분명 저는 제 학생들을 제 차대대로 재서, 기출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개성이란 분명 전세계 인구수 만큼의 개성이 존재할텐데 말이지요. 그 학생에게는 마음 정리되면 내려오라고 말하고 저는 그렇게 돌아왔습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생님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어찌어찌 했을 것 같아” 식의 장문의 메시지를 학생의 휴대폰에 남겨놓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은 그 다음날 기출을 끝내고 오후에 학교에 돌아왔습다. 그 때, 새로운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교사에서 학생으로라는 인방행이라 생각했습다. 교사만이 학생에게로의 관계가 아닌, 학생들로부터 라는 소통의 방법을 배웠습다.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다. “나의 소망”, 교사만이 학생을 살리는 것이 아닌, 학생도 교사를 살리는 영향력을 떠올리게 되었습다. 교사라는 자리는 완성형 자리인 줄 알았습다. 하지만 소통을 통해, 꾸준히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다.

더불어, 교사는 “완성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진실에 맞닿게 되었습다. 시대상과 더불어 교사로 언제나 다변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커리큘럼조차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다. 뉴스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을 자주 접합니다.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아마도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 속이 문드러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나아질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직중을 뜻하는 ‘교사’에서 성직으로서의 ‘스승’에 더 가까워질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땠니?” 이 질문을 교사도, 부모도, 선배도, 모두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통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어머십니까, 손아랫사람 또는 자녀한테 결과를 놓고 대화하기 보다는 “오늘 어땠어요?” 로 소통을 시도하심에 대해.



|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개요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6월	28일(화) 14:00~18:00	전문	건축물 구조설계 및 응용프로그램	이강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대강당	4시간	60,000원
7월	26일(화) 14:00~16:00	전문	지식재산의 이해	변종진 변리사 (변종진 특허법률)	대강당	2시간	30,000원
7월	26일(화) 16:00~18:00	전문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고성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대강당	2시간	30,000원
10월 (예정)	미 정	윤리	건축사의 역할과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	최혜영 교수 (전남대 사학과)	미정	1시간	무료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료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명기사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전반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실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 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